6월 '호국보훈의 달'…"광양으로 역사여행 오세요"

강희보·강희열 형제 의병장 등 정신 계승
일제강점기 한글로 쓰인 윤동주 육필도

광양시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형제 의병장, 매천 황현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결기와 민족시인 윤동주의 정신을 기리는 여행을 추천했다.

8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 봉강면에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우고 전사한 강희보·강희열 형제 의병장을 기리는 쌍의사가 있다.

두 형제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김천일 장군과 함께 10만 왜군에 맞서 전투를 벌였으며 1593년 6월27일과 29일 차례로 전사했다.

쌍의사는 동재, 서재, 삼문, 홍살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산책로를 따라 오르면 형제의 묘가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다.

봉강면 석사리에는 1910년 경술국치에 지식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분연히 자결한 매천 황현의 생가와 역사공원이 있다.

조선의 마지막 선비 매천은 2천500여 수의 시를 남긴 문장가이자 47년 간의 역사를 꼼꼼히 기록한 역사가로 경술국치에 통분해 절명시 4수를 남기고 결연히 순절했다.

경술국치에 통분해 절명시 4수를 남기고 결연한 매천 황현의 생가. 〈광양시 제공〉

매천의 기록물 '매천야록', '오하기문', '절명시첩', '유묵·자료첩' 등과 '매천 황현 문방구류', '매천 황현 생활유물' 등 총 8점은 항일 독립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진월면 망덕포구에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시인 윤동주의 육필시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보존한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등록문화재 제341호)이 있다.

윤동주의 연희전문학교 후배였던 정병욱은 일제강점기라는 서슬 퍼런 시대에 한글로 쓰여진 윤동주의 육필시고를 고이 간직해 세상에 알렸다.

북간도에서 태어난 윤동주는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지기까지 광양 땅을 밟은 적은 없지만 광양 망덕포구 정병욱 가옥에서 시인으로 부활했다.

망덕포구를 따라 나무 데크길을 걸어가면 서시, 별 헤는 밤 등 윤동주의 주옥같은 시 31편의 시비가 세워진 '윤동주 시 정원'이 여행자를 반긴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에 광양을 찾아 일제의 침략에 맞서 장렬하게 싸우고 전사한 형제 의병장과 일제의 침탈에 분연히 자결한 매천 황현의 발자취를 만나봤으면 한다"며 "망덕포구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과 시 정원을 들러 삼엄한 일제의 감시 하에서도 우리글로 민족정신을 그린 윤동주의 시와 그것을 지켜낸 정병욱의 깊은 우정도 가슴에 새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곡성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주력'

투자보조금 대상 확대·관외 완제품 수송비용 지원 등

곡성군이 투자유치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8일 곡성군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다양한 영향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를 극복하고 기업의 지역 내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체적인 투자 지원 제도를 신설, 정비하고 있다.

군은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을 당초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서 농공단지 외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기업까지 확대해 우수·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공장 신·증설 또는 이전기업에 부지 매입비 최대 4억원, 시설보조금 최대 5억원, 도로나 상수도 인입 등 기반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군은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기업을 유치하고자 한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부담을 겪고 있는 기업의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관내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도 관외로 완제품 수송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투자유치 시행 계획 추진을 통한 지원 확대로 관내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규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이호산 기자

고흥군이 최근 건다시마 풍작기원제와 초매식을 열어 첫 위판을 시작했다. 사진은 금산면 오천 다시마위판장에 쌓인 출하를 앞둔 다시마. 〈고흥군 제공〉

고흥군, 건다시마 첫 위판…본격 출하

해풍건조로 맛·향 탁월…37t 2억9천만원, kg당 평균 8천원

고흥군은 8일 "본격적인 다시마 수확철을 맞아 지난 5일 금산면 오천 다시마위판장에서 건다시마 풍작기원제와 안전조업 기원을 위한 초매식이 열렸으며, 본격 위판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초매식에는 다시마 생산 어민들이 참석했으며 해황 여건 안정과 어민들의 안녕을 바라는 기원제를 올리고 건다시마 첫 경매가 개시됐다.

첫 위판 물량은 약 37t, 위판액은 2억9천만원으로 위판 가격은 1kg당 평균 8천원에 거래됐다.

다시마는 다량의 칼슘, 철분, 마그네슘 및 식이섬유가 풍부해 비만 예방에 탁월하고 몸속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 알긴산도 함유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고흥에서 생산된 다시마는 청정해역에서 자라 맛과 향이 탁월하며, 육상건조장에서 해풍으로 자연 건조해 주로 단백하고 감칠맛을 내는 국물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초매식에 참석한 공영민 군수는 "고흥산 다시마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 어가의 인력난 해소와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고흥군에서 생산된 건다시마 위판 실적은 560t, 47억4천800만원의 소득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태풍 간접 영향으로 수확 시기가 늦어져 수온 상승에 따라 갯병이 발생하거나 엽체가 탈락할 것으로 보여 전년 대비 9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흥=최봉환 기자

여수시-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역민 우선 채용' 협약

22번째 동참기업…청년 실업 해소·인구 증가 등 협력

여수시는 8일 "전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여수산단 지역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로써 지역인재 채용 동참 기업이 22곳으로 늘었다.

시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상생 발전과 지역 내 청년 실업 해소·인구 증가 시책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역민 우선 채용을 위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고, 여수시에 거주하는 임·직원들에게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노력한다.

여수시는 산단 내 도로·하천·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정비 사업 등을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여수시'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여수산단 지역민 우선 채용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김대식 사업장은 "기업의 성장에는 지역과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지역과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의 젊은 인재들의 산단 내 취업기회 확대로 이어져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구례군, 재난관리평가 '우수' 기관 표창·특별교부세 받아

구례군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재난관리평가의 평가 항목은 ▲재난안전 예방·대비·대응·복구 ▲행·제정관리 ▲기관장 관심도 등 36개다.

평가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재난관리평가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한다.

군은 안전교육·안전 문화운동,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실적, 방재훈련 모의시스템 도입 등 여러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구례=임종길 기자

보성 율포솔밭해수욕장 내달 8일 개장

8월27일까지…편의시설 정비·안전시설 점검 등 준비

보성군은 8일 "다음달 8일 율포솔밭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편의시설 정비와 안전시설 점검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개장 기간은 7월8일부터 8월27일까지다.

율포솔밭해수욕장(사진)은 맑은 바람과 소나무 숲, 은빛 모래 등을 즐길 수 있고 광주시에서 가까운 바다로 많은 피서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해수욕장 인근에는 율포해수녹차센터를 비롯해 회천수산물위판장, 보성비봉공룡공원, 비봉마리나, 바다낚시공원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갖춰져 있다.

또 보성의 대표 관광지인 차밭과 봇재, 한국차박물관 등 관광 명소 진출이 용이하다.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율포해수녹차센터는 3층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노천욕을 즐길 수 있고 아쿠아토닉, 놀이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하 120m에서 끌어올린 청정 암반해수와 녹차를 이용한 목욕장을 운영해 야외 물놀이 후 목욕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가족 단위로 즐겨 찾는 장소다. 다채로운 버스킹 등도 준비돼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율포솔밭해수욕장은 입장료와 주차비를 받지 않고 야영장 이용도 자유로운 만큼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며 "쾌적한 휴양지를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과 수시로 시설 점검, 방역 활동 등으로 피서지 안전과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임병언 기자

"장성에 기부하고 사찰음식도 체험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30일까지 신청

장성군은 8일 "이색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을 마련, 7월 첫선을 보인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정관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권'(사진)을 답례품으로 고를 수 있도록 한다.

정관스님 사찰음식은 장성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으로 다수의 해외 미디어에 소개되며 한국음식, 일명 '케이(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를 선도하고 있다.

사찰음식 체험을 희망하는 기부자는 답례품 목록에서 체험권을 선택한 뒤 장성 백양사 누리집 예약창을 통해 '7월15일 토요일 체험'을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체험은 정관스님 사찰음식 시연과 오찬, 마음을 나누는 차(茶)담 등 3시간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며 모든 체험객에게 정관스님이 직접 담근 전통장류가 증정된다.

군은 추가 수요와 정관스님의 일정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도 사찰음식 체험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한종 군수는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선뜻 동참해 준 정관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장성을 사랑하는 기부자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이)음 또는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정관스님 사찰음식 체험 외에도 백양사 템플스테이, 벌초대행 서비스 할인권, 명품 농축산물, 장성사랑상품권 등 47개 품목 165개의 답례품이 마련돼 있다. /장성=김문태 기자